[자본론] 제1권 복습 (2) - 제2편 ~ 제4편 14장 (2026/01/04) & (2026/01/05)

작성자: 강성윤

제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4장 자본의 일반공식
제5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제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1. 상품유통의 소재적 내용[즉 각종 사용가치의 교환]을 무시하고, 오직 이 유통과정이 낳는 경제적 형태만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의 최후 산물로 화폐를 발견하게 된다. 상품유통의 이 최후 산물은 자본의 최초의 현상형태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반드시 처음에는 화폐의 형태로 [다시 말해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 따위의 화폐재산 형태로] 토지소유에 대립한다. … 오늘날에도 새로운 자본은 처음에는 언제나 화폐[일정한 과정을 거쳐 자본으로 전환할 화폐]의 형태로 무대에, 즉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pp. 191-2)

2. 단순상품유통[구매를 위한 판매]은 유통의 외부에 있는 최종목적[사용가치의 취득,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으로서 화폐의 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증식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운동의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에는 한계가 없다. (p. 198)

3. 자본은 유통에서 생길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생길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생겨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서 생겨야 한다. (p. 218) … 화폐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사서 그 가치대로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정의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음 유통에 던져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유통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보라!” (pp. 218-9)

4.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화폐소유자는 상품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 즉 노동자는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자기의 상품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 그는 노동력 이외에는 상품으로 판매할 다른 어떤 것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기의 노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물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다. (p. 223)

5.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p. 225) … 이른바 필수적인 욕구의 범위나 그 충족방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며, 따라서 대체로 한 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이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관습과 기대를 가지고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력의 가치규정에는 역사적 · 도덕적[관습적] 요소가 포함된다. (p. 226) …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분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이 생활수단의 가치,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p. 227) … 노동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노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마치 소화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p. 228) …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 …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그 뒤에 행해지는 노동력의 발휘에 있다. (p. 229)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7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제1절 노동과정

제2절 가치증식과정

제8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제9장 잉여가치율

제1절 노동력의 착취도

제2절 생산물 가치의 구성부분들을 생산물 자체의 해당 부분들로 표시

제3절 시니어의 '최후의 한 시간'

제4절 잉여생산물

제10장 노동일

제1절 노동일의 한계들

제2절 잉여노동에 대한 탐욕. 공장주와 보야르

제3절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 교대제

제5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 노동일을 강제로 연장시키는 입법

제6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법률이 노동시간을 강제로 제한.

1833~1864년의 영국 공장법

제7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영국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제11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제7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6. 노동력의 사용이 바로 노동이다. 노동력의 구매자는 노동력의 판매자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노동력을 소비한다. 이것에 의해 노동력의 판매자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 즉 노동자로 된다. (p. 237)

7. 노동과정의 기본 요소들은 (1)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 [노동 그 자체], (2) 노동대상, (3) 노동수단이다. (p. 238) … 노동수단이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대상 사이에 끼워넣어 그 대상에 대한 자기 활동의 전도체로서 이용하는 물건[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복합체]이다. (p. 239) …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노동수단으로 생산되는가이다. 노동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속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이기도 하다. (p. 240)

8. 노동은 그 소재적 요소인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소비하며 그것들을 다 써버린다. 따라서 노동은 소비행위이다. 이 생산적 소비가 개인적 소비와 구별되는 점은, 개인적 소비에서는 생산물이 살아 있는 개인의 생활수단으로 소비되며, 생산적 소비에서는 생산물이 [살아 있는 개인의 노동력을 발휘하는] 노동의 수단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소비가 만들어내는 것은 소비자 자신이지만, 생산적 소비의 결과는 소비자와는 구별되는 생산물이다. (p. 245)

9. 노동과정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합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의 일반적 조건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노동과정은 인간생활의 어떤 형태로부터도 독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공통된 것이다. (p. 246)

10. 상품 그 자체가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생산과정도 노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의 통일이어야 한다. (p. 249)

11.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이 창조하는 가치는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이미 가치의 이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 자본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상품((노동력))의 독특한 사용가치[가

치의 원천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였다. (p. 258)

12. 가치형성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을 비교해 보면, 가치증식과정은 일정한 점 이상으로 연장된 가치형성과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p. 260) … 노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의 통일이란 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통일이란 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며 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다. (p. 263)

제8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13. 노동과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산물의 가치형성에 참가한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구체적 내용, 목적, 기술적 성격 여하를 따지지 않고 노동대상에 일정한 양의 노동을 지출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 생산물에 이전됨으로써 보존된다. 이런 이전은 생산수단이 생산물로 전환되는 동안, 즉 노동과정 중에 일어난다. 그것은 노동에 의해 매개된다. (p. 266)

14. 그러면 어떻게? 노동자는 동일한 시간에 두 번이나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편으로 면화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기 위해 노동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자기가 가공하는 면화의 가치나 자기의 노동수단인 방추의 가치를 생산물인 면사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바로 그 행위에 의해 종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가치를 노동대상에 첨가하는 것과 종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의 이중성은 분명히 그의 노동의 이중성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즉 그의 노동은 한 쪽의 속성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다른 쪽의 속성을 통해 가치를 보존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pp. 266-7)

15. 노동자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즉 그것을 생산물의 가치성분으로 생산물로 이전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 일반을 첨가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첨가되는 노동의 특수한 유용성, 그것의 특수한 생산적 형태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p. 267) … 방적공의 노동은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 면화나 방추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며, 방적노동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유용한 성질에 의해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며 그 가치를 생산물 속에 보존한다. 이로부터 동일한 시간 안에 노동은 두 개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p. 268)

16. 노동과정은 노동력 가치의 단순한 등가물이 재생산되어 노동대상에 첨가되는 점을 넘어 계속된다. … 따라서 노동력의 발휘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일정한 초과가치를 생산한다.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와 그 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요소들[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다. (p. 278)

17. 자본 중 생산수단[원료・보조재료・노동수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량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본의 불변부분 또는 간단하게 불변**자본**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 중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변동한다. … 이것을 자본의 가변부분 또는 간단하게 가변**자본**이라고 부른다. 노동과정의 관점에서는 객체적 요소와 주체적 요소[즉 생산수단과 노동력]로 구별되는 바로 그 자본요소들이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된다. (pp. 278-9)

제9장 잉여가치율

18. 가변자본이 가치증식된 비율은 분명히 가변자본(v)에 대한 잉여가치(s)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s/v에 의해 표현된다. … 가변자본의 이와 같은 가치증식의 비율 또는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잉여가치율이라고 부른다. (pp. 286-7) … 잉여가치율은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도 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정도의 정확한 표현이다. (p. 289)

19. 1노동일 중 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그는 자본가가 이미 자기에게 투하한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할 뿐이며, 새로 창조된 가치는 투하된 가변자본의 가치를 대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 1노동일 중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부른다. … 노동과정의 제2의 기간[즉 노동자가 필요노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하는 시간]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지출해 노동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는 무無로부터 창조라는 커다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일의 이 부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잉여노동이라고 부른다. (pp. 287-8)

20. 우리는 생산물 가치의 기능상 또는 개념상 서로 다른 성분들을 생산물 그 자체의 부분들로 표현할 수 있다. … 생산과정의 결과인 생산물은 생산수단에 이미 들어 있는 노동[불변자본]을 대표하는 부분과, 생산과정에서 첨가된 필요노동[가변자본]을 대표하는 부분과, 끝으로 생산과정에서 첨가된 잉여노동[잉여가치]을 대표하

는 부분으로 분할된다. … 그러나 우리는 이 총생산물을 그 생산단계를 통해서도 고찰할 수가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생산되는 몇 개의 부분적 생산물들을 총생산물의 기능상 구별되는 부분들로 나타내더라도, 이전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p. 295) … //방적공은 12시간에 20kg의 면사를 생산. 따라서 8시간에는 1노동일에 방적되는 면화의 총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생산물을 생산, 그 다음 1시간 36분 노동의 부분생산물은 노동수단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 다음 1시간 12분에 생산하는 2kg의 면사는 6시간의 필요노동시간에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 전체와 동등한 생산물 가치, 끝으로 최후의 1시간 12분에 생산한 면사의 가치는 반일분의 잉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와 동등하다.// (pp. 295-6)

21.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자본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 물론 이 방식은 옳은 것이다. … 그러나 이 방식은 매우 야만적인 사고방식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가치증식과정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곡해하는 편이 도리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방적공은 자기 노동일의 첫 8시간으로는 면화의 가치를, 그 다음의 1시간 36분으로는 소비된 노동수단의 가치를, 또 그 다음 1시간 12분으로는 임금의 가치를 생산 또는 대체하며, 그리고 오직 저 유명한 '최후의 한 시간'만을 공장주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에 바친다고. 그리하여 이 방적공에게는 이중의 기적을 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즉 면화나 방추나 증기기관이나 석탄이나 기름 등을 사용해 실을 뽑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을 생산해야 하며, 그리고 일정한 강도의 1노동일을 동일한 강도의 5노동일로 전환시켜야 한다. (p. 296) …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이와 같은 기적을 쉽사리 믿도록 하며, 또 이 기적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어용학자들이 결코 없지 않다. (pp. 296-7)

제10장 노동일

22. 약간의 매우 탄력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별도로 친다면, 상품교환 그 자체의 성질은 노동일 그리고 잉여노동에 어떤 한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될수록 연장하…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 즉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이 보증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해 총자본[즉 자본가계급]과 총노동[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pp. 312-3)

23.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구성체

에서는 잉여노동은 욕구의 범위가 다소 한정되기 때문에 제한되며,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구가 생산 그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생기지는 않는다. … 그러나 아직도 노예노동·부역노동 등의 비교적 낮은 형태에 의거해 생산하고 있는 민족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들어가 그들 생산물의 해외판매를 주요한 관심사로 삼게 되면, 노예제나 농노제 등의 야만적인 잔학성 위에 과도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학성이 접목된다. (pp. 313-4)

24. 공황기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오직 '단축된 시간', 즉 1주일에 며칠밖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이 공황도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축소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더 커야 하며, 따라서 작업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만큼 그 중의 잉여노동시간은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pp. 321-2)

25.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은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직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노동의 한 방울 한 방울과 함께 그것에 비례하는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있다. 생산수단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생산수단의 존재는 자본가에게는 일종의 소극적인 손실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은 쓸모없이 투하된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p. 345)

26. 노동일을 자연일의 한계를 넘어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증을 약간 풀어주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력을 낮과 밤 계속 착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과 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을 교대할 필요가 생긴다. (pp. 345-6)

27.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육체적 발전조건과 활동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 이것은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주어진 기간 안에서 노동자가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한다. (p. 359) …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p. 365)

28.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수세기에 걸쳐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p. 366) …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시간의 한계에까지 연장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

막 1/3기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p. 376) … 물질적 생산방식의 변화와 이에 어울리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이 제한하고 규제하며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pp. 405-6) …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이다. (p. 407)

제11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29.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에 관한]] (제1법칙)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투하한 가변자본의 크기에 잉여가치율을 곱한 것과 같다. (p. 414) … (제2법칙) 평균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는 가변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를 올리는 것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 (p. 416) … (제3법칙) 서로 다른 자본이 창조하는 가치 · 잉여가치의 양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같은 경우, 이들 자본의 가변부분의 크기[살아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p. 417)

30. 어떤 임의의 화폐액[또는 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일정한 '최소한도'의 화폐[또는 교환가치]가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p. 419) …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 단순한 양적 차이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질적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개별적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액의 최소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또 주어진 발전단계에서도 생산분야가 다르면 각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pp. 420-1)

31. 자본은 먼저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곧장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p. 422)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제13장 협업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처
제1절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원
제2절 부분노동자와 그의 도구
제3절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본형태: 이질적 매뉴팩처와 유기적 매뉴팩처
제4절 매뉴팩처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
제5절 매뉴팩처의 자본주의적 성격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제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32.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p. 431)

33.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로 드는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pp. 433-4)

34.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종전대로 지급한다. …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1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취득한다. … 그러나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이 특별잉여가치는 사라진다. (p. 435)

35.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 법칙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고 또 바로 이 법칙이 경쟁의 강제법칙으로 작용해 자기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전체를 거쳐 최후로 일반적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생활필수품 생산에 기여하는 산업부문에서 일어나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pp. 435-6)

36.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 있는, 그리고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잉여가치뿐이다. …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환가치의 생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 (p. 437)

37.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의한 노동의 절약은 결코 노동일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공짜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 438)

제13장 협업

38.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p. 439)

39. 결합된 노동일은 이것과 동일한 크기의 개별 노동일의 합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주어진 유용효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결합된 노동일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건 … 어떤 경우라도 결합된 노동일의 특수한 생산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또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다. 이 생산력은 협업 그 자체로부터 생긴다. (p. 448) … 협업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특수한 존재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협업에서 발휘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 놓일 때는 언제나 무상으로 발휘되며, 그리고 자본은 노동자들을 바로 이런 조건 아래 놓는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고, 또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에 속하기 전에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산력으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pp. 453-4)

40. 앞의 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동시에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이 고용주 자신을 육체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를 소경영주로부터 자본가로 전환시켜, 자본관계가 형태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소한도의 자본액이 필요했다. 이제는 자본의 이 최소한도가 다수의 분산되고 상호독립적인 노동과정들을 하나의 결합된 사회적 노동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도 처음에는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따라서 자본가 밑에서 노동한다는 사실의 형태적인 결과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많은 임금노동자의 협업에 따라 자본의 지휘는 노동과정 그 자체의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산의 현실적 조건으로 발전해 간다. 생산 장소에서 자본가의 지휘는 이제 전쟁터에서 장군의 지휘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p. 450)

41. 대규모로 수행되는 모든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 또는 공동노동은, 개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생산유기체의 독립 기관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생산유기체 전체의 운동으로부터 생기는]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 독주자는 자신이 직접 지휘자가 되지만 교향악단은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지휘·감독·조절의 기능은 자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동이 협업적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한 기능으로 된다. 자본의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지휘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특수한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p. 450)

42. 자본주의적 생산을 추진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자본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증식시키는 것,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최대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협업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지배에 대한 그들의 반항도 증대하며, 또한 이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자본의 압력도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자본가에 의한 통제는, 사회적 노동과정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하나의 특수기능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사회적 노동과정을 착취하는 기능이며, 따라서 착취자와 그의 착취대상 사이의 불가피한 적대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p. 450)

43. 또한 타인의 소유물로서 임금노동자와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생산수단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도 증대한다. 더욱이 임금노동자들의 협업은 전적으로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에 의해 생긴 것이다. 그들을 단일의 생산체로 통일하고, 그들의 개별 기능들 사이에 하나의 관련을 형성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능력 밖의 일이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 함께 일하도록 만든 자본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다양한 노동 사이의 상호관련은, 관념적으로는 자본가의 계획으로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자본가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자본가의 권위[타인의 강력한 의지]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가의 지휘는 그 내용에서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휘하는 생산과정 자체가 한편으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pp. 451-2)

44. 자본가의 지휘는 그 형식에서는 독재적이다. 협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 독재도 자기의 특유한 형태들을 전개한다.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도에 도달하자마자, 먼저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이제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자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감독 업무를 특수한 종류의 임금노동자들에게 넘겨준다. … 감독이라는 업무가 그들의 전문기능으로 확정된다. 분산된 농민이나 독립적 수공업자의 생산방식을 노예제도에 의한 농장경영과 비교할 때, 경제학자들은 노예제도의 감독노동을 생산상의 공비로 계산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고찰할 때는 이와 반대로 집단적인 노동과정의 성질에서 발생하는 지휘기능과, 노동과정의 자본주의적, 따라서 적대적 성격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지휘기능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시대에는 장군 · 판사의 기능이 토지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산업의 지도자는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 (pp. 452-3)

45. 고대와 중세 및 근대 식민지에서 때때로 이용되는 대규모의 협업은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대부분의 경우 노예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처음부터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하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소농민적 경영과 독립적 수공업[길드의 형태를 취하든 말든]에 대립해 발전한다. 소농민과 수공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협업이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특유한 그리고 독특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난다. (pp. 455-6) … 협업의 단순한 형태는 더욱 발전된 형태들과 나란히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협업은 언제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기본형태다. (p. 457)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처

46. 분업에 토대를 두는 협업은 매뉴팩처에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로 [대략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의 마지막 1/3에 이르는]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를 통해 지배적이었다. (p. 458)

47. 매뉴팩처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던 직업의 자연발생적 분화를 작업장 안에서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끝까지 추진함으로써 부분노동자들의 숙련을 생산해 낸다. (p. 463) … 매뉴팩처 시대는 노동도구를 각 부분노동자들의 전문적인 특수기능에 적합하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단순화하고 개량하며 다양하게 한다. (p. 465)

48.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 생산수단이 집적되는 것을 전제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독립된 다수의 상품생산자 사이로 생산수단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한다. (p. 483)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무정부상태와 매뉴팩처적 분업의 독재가 서로 다른 것의 조건으로 되고 있다. (p. 485)

49. 집단적 노동유기체는 단순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뉴팩처에서도 자본의 존재형태다. 다수의 개별 부분노동자로 구성되는 사회적 생산조직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각종 노동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매뉴팩처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낸다. 단순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매뉴팩처는 그것을 철저히 변혁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매뉴팩처는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불구자로 만든다. (p. 485) … 매뉴팩처에서는 집단적 노동자와 이를 통해 자본의 사회적 생산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력은 빈약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p. 491)

50. 야만인이 모든 전쟁기술을 개인의 책략으로 발휘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작은 규모에서이기는 하지만 독립적 농민 또는 수공업자도 지식·판단력·의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매뉴팩처에서는 그런 능력은 오직 작업장 전체를 위해서만 요구될 뿐이다.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이 한 방면에서는 확대되면서 다른 여러 방면에서는 완전히 소멸된다. 부분노동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자본에 집적된다. 부분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과정의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자기를 지배하는 힘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은 매뉴팩처적 분업의 결과다. 이 분리과정은,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결합된 노동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과정은 노동자를 부분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한다. 끝으로, 이 분리과정은 과학을 자립적 생산력으로 노동과 분리시켜 자본에 봉사하게 하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 (pp. 490-1)

51. 매뉴팩처는 사회의 생산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도 없었다. … 매뉴팩처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자, 매뉴팩처 자신의 협소한 기술적 토대는 매뉴팩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상의 여러 가지 필요와 모순하게 되었다. 매뉴팩처의 가장 완전한 성과 중의 하나는 노동도구 그 자체[특히 이미 사용하고 있던 복잡한 기계적 장치]를 생산하는 작업장이었다. … 매뉴팩처적 분업의 성과인 이 작업장이 … 생산한 기계는 수공업적 노동자가 사회적 생산의 규제원리로 기능하는 것을 철폐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노동자를 일정한 부분적 기능에 일생 동안 얽매어 두는 기술적 이유가 사라지고, 다른 한편으로 위의 규제원리가 자본의 지배에 가한 장애물들도 사라져 버린다. (p. 501)